



“KIA의 미래 봤다... 가장 꾸준했던 선수는 최형우”

최종전서 NC에 4-3 끝내기승 6위 마감...최형우 타격왕

지난 31일 KIA 타이거즈의 2020시즌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올 시즌 첫 출항에 나선 '윌리엄스호'는 안방에서 열린 NC다이노스의 최종전을 5-4, 끝내기 승리로 장식하면서 144경기 일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73승 71패(승률 0.507). 5할 승률은 넘겼지만 5강 문턱은 넘지 못하면서 6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윌리엄스 감독이 아쉬움의 2020시즌을 돌아봤다.

◇신중한 낙관론

윌리엄스 감독은 최종전에 앞서 2020시즌을 '한 단어'로 표현해달라는 질문에 'cautious optimism'이라는 단어를 말했다. 신중한 낙관론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봤다"는 것이 윌리엄스 감독의 설명이었다. "긍정적인 부분 속에서도 앞으로 해야 할 것들도 많이 남아있다"는 게 그의 또 다른 이야기이기도 했다.

KIA는 포스트 시즌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시즌 중반 뜨거운 질주로 경쟁력을 보여줬다. 불펜의 견고함, 야수들의 세밀함과 스피드는 속제로 남았다. 윌리엄스 감독 스스로 성찰의 목소리도 냈다. 화려한 빅리그에서 선수와 지도자로 풍부한 경험을 쌓았지만 낮은 KBO리그에서는 '초보 감독'. 윌리엄스 감독은 "우리가 목표했던 곳까지 가려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며 "나도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선수들 이해하는 부분이라든지 배우고 좋아질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꾸준함

윌리엄스 감독이 올 시즌 가장 강조한 부분은 '꾸준함'이었다. 사령탑의 마음과 달리 꾸준함은 KIA의 속제가 됐지만 올 시즌 경험이 '꾸준함'을 위한 발판이 됐을 거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격적인 부분에서 처음 풀시즌을 소화한 선수들에게는 많은 경험이 됐을 것이다"며 "비시즌

윌리엄스 초보 감독 '1년간의 소회'

‘브룩스 변수’ 등 있었지만 꾸준히 이길 수 있는 힘 필요 양현종 없는 마운드 구성 속제 목표 달성 위해 나도 배울 것

을 준비하면서 양현종의 거취 등 투수 파트에 몰을 표가 있지만 시즌 초반 투수들이 좋은 경기, 활약 보여줬다. 꾸준히 한 시즌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부상이 많은 해였다"면서도 "다른 선수들이 그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려고 최선을 다해줬다"고 언급했다.

윌리엄스 감독의 '꾸준함'에 부합한 활약을 선보인 선수들도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선수는 바로 '타격왕' 최형우다. 꾸준하고 강렬한 시즌을 보낸 최형우는 0.354의 타율로 개인 두 번째 타격왕 타이틀을 차지하고, '무관' 위기의 팀을 구했다.

타이거즈에서는 1990년 한대화, 1994년 이종범, 2002년 장성호, 2007년 이현근, 2017년 김선빈에 이어 6번째 타격왕이다.

◇10월 1일

윌리엄스 감독은 2020시즌을 돌아보면서 10월 1일을 떠올렸다.

이날 KIA는 고척 키움전에서 3-1 승리로 스윙승을 완성했다. 브룩스가 가족의 교통사고로 급히 귀국하면서 위기에 몰렸던 KIA는 김현수의 5이닝 무실점 감쪽 호투로 난적 키움에 싸늘이 3연승을 거뒀다.

이와 함께 KIA의 5강길에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KIA는 바로 이어진 두산 원정에서 싸늘이 3연패를 당했고, 최하위 한화-SK를 상대로 했

던 홈 7연전에서 2승 5패의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고척에서 키움과 좋은 경기를 했다. 홈에 돌아와서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 시기에 맞춰 KT의 분위기가 뜨거워졌다. 그 이후 쫓아갈 수 있는 힘이 부족했다"며 "브룩스가 떠난 영향도 있지만 몇 가지 이유로 이렇게 됐다"고 변명하고 싶지는 않다. 어떤 상대를 만나든 꾸준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휴식같은 시즌

윌리엄스 감독은 내년 시즌 구상을 밝히면서 "경기 자체가 휴식이라고 느꼈던 시즌이었다"고 말했다.

비시즌에 너무 많은 변수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주어진 여건에서,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시즌이 오히려 편했다는 의미였다.

코로나19로 스프링캠프를 진행해야 하는 장소가 한정적이고, 선수 구성에도 고민이 있다.

일단 양현종이 해외 진출에 대한 강한 의사를 보이는 만큼 도전 의식을 존중해, 양현종을 빼고 마운드 틀을 짜게 된다.

미국과 다른 '국방의 의무'도 윌리엄스 감독의 고민거리다.

윌리엄스 감독은 최종 판단은 선수들에게 맡길 계획이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현장에서 의견을 나눴고, 놀라운 발전을 이룬 최원준에게는 '잔류' 의사를 전달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직접 마무리캠프를 지휘하며 내년 시즌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그는 "미국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확실하게 많지만 크리스마스 정도에 돌아갈 생각이다"며 "11월에 웨이트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에 초점 맞춰 같이 운동을 한다. 12월에는 선수들이 알아서 비시즌을 잘 보낼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올 시즌 1군에서 활약한 주축 선수들은 15일까지 휴식의 시간을 보낸다. 신인 선수들과 2군 선수단은 6일부터 함평 웰리저스필드에서 새 시즌을 준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회 26득점 '담양애' 4회 콜드승 8강행

광일리그 '알바트로스'·'뉴욕야시장' 도...무등리그 에어패스파죽지세·자연환경 4강

무등기 4주 차 전적	
◇광일리그 16강전	
◆1경기 (4회 콜드게임)	
알바트로스	2 0 3 6 - 11
바른카(BFB)	0 0 0 0 - 0
▲승리투수 : 박현수	
◆2경기 (4회 콜드게임)	
뉴욕야시장	5 1 5 2 - 13
위리어스	1 0 2 0 - 3
▲승리투수 : 이안수	
◆3경기 (4회 콜드게임)	
BLACK	0 0 0 3 - 3
담양애	26 3 0 X - 29
▲승리투수 : 윤동호	
◇무등리그 8강전	
◆4경기 (5회 콜드게임)	
시원병원	2 0 0 1 0 - 3
에어패스파죽지세	5 0 4 2 X - 11
▲승리투수 : 이창수	
◆5경기	
금호허리케인	0 0 0 1 0 0 3 - 4
자연환경	0 2 0 0 3 0 X - 5
▲승리투수 : 박래준	



지난달 31일 함평야구장에서 열린 제10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뉴욕야시장과 위리어스의 16강전. 뉴욕야시장이 9-1로 앞선 3회초 1사 2·3루에서 뉴욕야시장의 박용주의 적시타가 나오자 3루에 있던 주자 박선률이 홈에 들어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등기 광일리그 8강팀이 확정됐다. 지역 사회인야구인들의 '가을잔치' 제10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4주 차 경기가 지난 31일 함평야구장에서 열렸다. 앞서 청운에너지·담양로얄즈·풀카운트·썬더스(주)삼진이 광일리그 8강에 선착했고, 4주 차 경기를 통해 알바트로스·뉴욕야시장·담양애가 남은 세 자리를 채웠다. 알바트로스는 박현수의 4이닝 무실점 호투를 앞세워 바른카(BFB)를 11-0, 4회 콜드승으로 제압했다. 박현수는 4개의 피안타만 허용하는 깔끔한 피칭으로 승리의 주역이 됐다.

타석에서는 2번 강균환이 3타점 3득점의 활약을 하면서 수훈선수가 됐다. 뉴욕야시장은 위리어스를 13-3, 4회 콜드로 꺾고 8강 진출을 확정했다. 선발 이안수가 4이닝을 3실점으로 지키면서 승리투수가 됐다. 리드오프 박선률이 3개의 도루와 함께 3득점을 기록하며 공격 전면에 섰다. 위리어스는 이안수에 막혀 단 하나의 안타도 만들지 못하고 9개의 삼진만 기록했다. 담양애는 1회에만 26점을 뽑는 폭발력을 과시하면서 BLACK을 상대로 29-3, 4회 콜드승을 장식

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담양애의 주자들이 끊임없이 홈을 밟는 등 선발 전원 안타가 기록됐다. 선발 윤동호는 4이닝 3실점(비자책점)으로 마운드를 지키면서 승리투수가 됐다. 4·5경기에서는 무등리그 4강팀이 가려졌다. 에어패스파죽지세는 선발 이창수가 5이닝 원투승을 장식하면서 시원병원을 11-3, 5회 콜드승으로 꺾었다. 시원병원이 1회초 먼저 2점을 냈지만, 파죽지세가 이어진 공격에서 바로 5점을 뺏으며 리드를 가져왔다. 3회에도 4점을 보태며 승기를 가져왔다.

이창수에 막힌 시원병원 타선은 2안타에 그쳤다. 자연환경은 금호허리케인과의 팽팽한 승부 끝에 5-4, 1점 차 승리를 거뒀다. 2-1로 앞선 5회말 자연환경이 3점을 뽑아내면서 승기를 가져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7회초 1점 차까지 쫓기며 긴박한 승부가 연출됐다. 금호허리케인 입장에서는 돌아오지 못한 주자가 두고두고 아쉬웠다. 7회 1사 만루에서 나온 중견수 플라이, 2루에 있던 주자 장재구가 3루로 뛰다가 귀루를 하지 못하면서 2사 1·3루가 됐고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와일드카드1차전 비로 순연 LG-키움 오늘 오후 6시30분

2020 KBO 포스트시즌이 비로 하루 밀어 2일 시작된다. 1일 잠실구장에서 예정됐던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이 비로 순연됐다. 경기는 2일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된다. 일정이 변경됐지만 양 팀은 선발 변동 없이 케이시 켈리(LG)와 제이크 브리검(키움)으로 1차전을 치른다. 켈리는 올 시즌 28경기에 나와 평균자책점 3.32로 15승 1패를 기록하며 에이스 역할을 했다. 팔꿈치 통증으로 6월 한 달 자리를 비웠던 브리검은 정규시즌을 9승 5패 평균자책점 3.62로 마감했다. 올 시즌 기록에서는 켈리에 뒤져있지만, 브리검은 KBO리그 4년 차로 '가을잔치' 경험이 풍부하다. 한편 1차전에서 4위 LG가 승리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하면 2차전 없이, LG의 준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다. 5위 키움은 1·2차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둬야 준플레이오프 티켓을 가져올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

선동열, SK 감독 맡나

프로야구 '레전드' 선동열(57) 전 국가대표 감독이 최근 KBO리그 SK 와이번스 고위 관계자를 만나 감독 면담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SK 관계자는 지난 30일 "선동열 전 감독은 최근 구단 고위 관계자와 만났다"며 "다만 선전 감독은 후보 중 한 명이며,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된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수 명의 후보를 놓고 고심 중이며, 그룹의 재가를 받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K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신임 감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선동열 전 감독은 2004년 삼성 수석코치를 거쳐 2005년 삼성 사령탑에 올라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을 달성하며 지도자로서 명성을 날렸지만, 2010년 연말 해임 통보를 받고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